박람회 앞둔 여수시-의회 갈등 고조

"의회경시 度 넘어" "집행부 길들이기"

역명 변경·시장 해외출장 놓고 충돌

여수시의회와 여수시의 갈등이 심상치 않다.

여수시의회는 역명 개정과 시장의 해외 출장 등을 놓고 '의회 경시가 도를 넘었다'며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고, 시는 '소모적인 논쟁으로 집행부를 길들이기하고 있다'며 정면 돌파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수시의회 김영규 의장은 지난 11일 제133회 정례회 개회사를 통해 "집행부가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일방통행식 행정을 일삼고 있다"며 "의회에 부여된 모든 법적 권리를 이용해 대응하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 의장은 이날 "여수역명 변경은 의회가 만장일치로 반대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진행하고, 해양공원 명칭 변경 역시 일언반구없이 집행부 독단적으로 처리했다"고 집행부를 성토했다.

김 의장은 또 "시장이 시의회 정례회 개회일이 미리 예고됐음에도 해외일정을 먼저 결정해 놓고 의회에 통보했다"며 "최소한 정례회 기간에 해외를 가려면 의회와 사전 협의 정도는 해야 하지 않냐"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 의장의 이날 발언은 민선 4기말 추상은 전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오현섭 전 시장의 독선 행정을 문제 삼은 것에 비교하면 상당히 빠르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현재 역명은 오는 9월말 KTX 개통을 앞두고 기존 여수역을 '여수엑스포역'으로, 여천역은 '여수역'으로 변경된다. 현재 관보 고시를 앞두고 있다.

시는 이미 지난 3월 17일 전남도에 역명 개정을 신청한 후 지난 4월 시의회 간담회와 지난 5월 시민공청회를 차례로 열어 개정을 강행해 의회와의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는 현재 역명 개정은 엑스포 이후에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관련 예산 8억원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시장의 잦은 해외 출장 역시 최근 시민단체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할 정도로 도마에 오른 데 이어 의회까지 해외 출장의 절차상 하자를 따지고 나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시의회의 이같은 강경 입장을 놓고 '뒷북'대응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이미 철도공사 역명 심의위가 여수시 요구를 수용해 역사 명을 확정한 마당에 '역사명 변경반대 결의문'을 내는 것은 소모적이라는 것이다.

해외출장 또한 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 BIE 총회 등 국제행사 참석, 국제 자매도시 등에 대한 박람회 홍보와 관람객 유치, 투자유치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출장은 횟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안방의 부모님이나 자식이 모르게 해야 하지 않냐"며 "박람회를 앞두고 국고지원을 받아야 할 일이 산적한 마당에 이런 일이 벌어져 난감하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김창화기자

원추리 꽃길 건강걷기 구례 군민들이 최근 열린 '서시천변 원추리 꽃길 건강걷기 행사'에 참여해 여름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구례군생활체육회에서 주관한 이번 행사는 서시천 제방 산책로 3.2km 구간에서 펼쳐졌다. 〈구례군 제공〉

민선 5기 1년

이동진 진도군수

3조 2000억 진도항 개발 본격화

현안 국고 755억 확보

농수산업 마케팅 지원

지역상권 살리기 박차

이동진 진도군수는 "진도항 개발과 매력있는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특화된 민간자본 유치, 농·수산업 마케팅 지원 등 역점시책을 실현하는데 군정의 역량을 집중했다"고 민선 5기 지난 1년을 평가했다.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는 우수축제로 선정됐으며, 농·어촌 활력증진사업, 위험도로 구조개선, 소도읍 육성, 도서개발 등 각종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자치단체 반열에 올랐다.

또 8월 제27회 대통령기 전국시·도탁구대회를 유치하고 실내수영장과 실내체육관을 건립해 스포츠 메카로 도약하는 기틀을 다졌다.

특히 이 군수는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중앙부처를 찾아다니며 발로 뛴 결과 지난해 국고지원 현안사업 등 755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무엇보다 지난해 3조27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국책사업인 진도항 개발사업 확정과 2억 달러(2200억원)에 달하는 해삼·전복 양식산업 외국인 투자협약, 면 소재지 종합 정비사업 등 중앙부처 공모 사업 11개 선정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진도항은 오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발되면 군의 미래 발전을 견인할 신성장 동력산업의 초석으로 자리매김해 수십조원의 경제유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군수는 지난 4일 직원 정례조회에서 업무성과에 의한 '신상필벌'(信賞必罰) 방침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군수는 "개발사업의 생명은 효율성(시간)과 품질로 공직자들은 업무를 추진하는데 책임감·사명감·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향후 군정방향에 대해 ▲농·수산업 등 민간역량 강화 ▲관광산업 활성화 ▲성과있는 개발사업 추진 등을 강조했다.

이 군수는 민선 5기 공약사업으로 ▲진도항 개발 ▲녹진~서망간 4차선 관통도로 ▲조류 발전소 건설 등 6개분야 총 66건을 제시했다. 특히 농·수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 농업인은 생산을, 행정은 판매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다. 1년이 지난 현재 10건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56건은 정상적으로 추진중이다.

조도권 관광지 집중개발과 체험하며 머물고 가는 관광시설 건설, 바다와 섬을 조망하는 해안 일주도로 건설, 투자환경 조성과 기업유치 등 사업도 본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 군수는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우수한 인재육성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군은 지난 2008년 (재)진도군 인재육성 장학회를 설립, 출연금과 기탁금을 포함해 42억6100만원을 조성했다. 그동안 181명에게 1억12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 지역 인재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장학기금 100억원 목표액의 조기달성을 위해 매년 10억원씩을 출연할 계획이다.

이동진 군수는 "민선 5기 1년을 계기로 공직자 모두가 계획했던 업무에 대해 명예를 걸고 열심히 해나가자"고 강조했다.

/서부취재본부=박현영기자 hypark@

고흥읍·도양읍 침수 걱정 덜었다

우회 배수로 설치…침수피해 한 건도 없어

고흥군이 고흥읍과 도양읍에 우회 배수로를 설치, 상습적인 침수피해 근심을 덜었다.

14일 고흥군에 따르면 지난 9일 고흥읍과 도양읍에 일일 최대 341㎜(시간당 45㎜)의 집중호우가 내렸지만 침수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동안 고흥읍과 녹동 전통시장 등 지역은 집중호우가 내릴 때마다 상습적인 시가지 침수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

특히 지난 2007년 태풍 '나리' 내습 시는 217㎜ 비로 고흥읍 시가지 상가와 점포, 주택 등 1015동과 도양읍 녹동전통시장 등 363동이 침수되는 등 많은 재산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2009년 고흥읍과 도양읍에 각각 사업비 91억원과 118억원을 투입해 시내를 관통하는 지하 우회배수로 1040m와 1296m를 신설, 이번 집중호우시 효과를 증명했다.

고흥군 정성언 복구지원담당은 "우회배수로 공사시 인근 지역 주민들로부터 공사실효성 논란 등 많은 민원이 있었다"며 "이번 집중호우때 단 한곳도 침수지역이 발생하지 않아 주민들의 우려는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주각중기자 gjju@

함평 취수원 '대동제' 오염원 조사

K-water 전남본부 정수장 수질 대책 강구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석천)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해 함평정수장 취수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대동제' 상류지역을 대상으로 오염원 조사에 나선다.

이번 오염조사는 저감시설에 대한 현황 조사, 오염행위(폐기물 투기) 방지와 유류유출 우려 시설을 포함한 생활쓰레기 투기 현황 등에 대해 현장을 방문해 면밀히 조사한 뒤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전남지역본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대동제 상류 지역의 인구현황은 물론 ▲토지이용 현황 ▲가축사육 현황 ▲폐수 배출시설 현황 ▲하수처리율 등도 조사, 정수장 수질 공정관리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K-water 전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대동제 유역내 주요 오염원의 상시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수질 보전대책 추진시 자료로도 활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

초요기를 올려라·해전 재현·만가(輓歌) 행진

명량대첩 축제 3대 이벤트 펼친다

오는 9월 30일부터 3일간 해남·진도 울돌목 일원에서 펼쳐지는 '2011 명량대첩 축제'가 세계적 해전사에 기록되는 414년전 명량해전 승리를 조명하는 화합과 평화의 축제로 치러진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축제주제를 '승리의 바다 울돌목'으로 정하고 3대 이벤트로 ▲초요기를 올려라 ▲해전 재현 ▲만가(輓歌) 행진 등을 선정하고 축제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초요기를 올려라'에는 800여개 마을별 깃발로 진도대교를 장식하고 풍물과 가장행렬,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는 대동 명량 강강술래가 진행된다.

축제의 백미인 '해전 재현'에는 복원 판옥선 2척과 일반 판옥선 13척이 왜선 133척과 벌이는 해상전투를 울돌목에서 30여분간 선보인다.

승리를 넘어 화합으로 가는 '만가행진'은 해전에서 죽은 한·중·일 수군들의 원혼을 달래는 행사로 진도특유의 장례문화와 결합해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특별 이벤트로 이순신 장군의 23전 23전승을 기념하는 '진도대교 23전23승 도전 체험장'이 운영되고 녹진 바닷가에는 메밀꽃밭과 2km의 메밀밭 산책로도 조성돼 관광객들의 인기를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축제 운영은 주민 참여형으로 치러지며 해남·진도 출신 현장 감독제를 운영, 축제운영의 자립화를 추진하고 전문 공연 프로그램은 최소화했다.

최동호 전남도 관광정책과장은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착실한 준비를 통해 문화관광축제로 진입하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

나주혁신도시 전문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나주혁신도시에 투자하십시오!

상업용지 • 주차장용지 • 이주자택지 • 협의자택지

솔로몬공인중개사 사무소

보물창고 (061)333-7077

010-3153-4242

위치 : 금천면사무소 맞은편

호남랜드공인중개사

상무지구 시청앞 LH공사광주전남지사옆 유지빌딩 501

남구 대촌부근 주거지역

●남구 압촌동 한일베라체 주변 대로변 인근 토지 1990㎡(602평). 일반주거지역. 아스팔트포장도로 접함. 매매가 3.3㎡당 95만원. (슬래브 주택 30평 포함)

소태동 잡종지매매

●동구 소태동 대아아파트 부근 .잡종지.627㎡(190평). 매매가 3.3㎡당 130만원. 복개된 국유지 구거 약 70평 별도 이용가능.

완도 독섬 매매

●완도군 금일면 독섬 매매 . 면적 : 198,184㎡(59,950평). 매매가 평당 2만원. 지하수 있음. 종전에 사람이 살았으며 현재 무인도. 생산관리지역

전원주택지 매매

●남구 대지동(대촌부근).일반주거지역. 마을내 나대지 886㎡(268평) 매매가 9800만원.(3.3㎡당.365,000원)

소촌공단내 공장매매

●광산구 소촌동 소촌공단내 공장용지 660㎡(200평). 공장264㎡(80평). 매매가 3억.

화순도곡 전원주택지

●화순군 도곡면 효산리 도곡면소재지부근. 6,745㎡(2,040평). 관리지역. 현재임야. 2차선 포장도로 접함. 매매가 3.3㎡당 16만원.농장 및 개간가능 임야 구함.

농장 및 개간가능 임야 구함

●무안 함평 영광.등 광주인근 토질 좋은 곳. 개간 가능한 임야도 좋음. 10,000㎡ - 70,000㎡

무등산 전원주택지

●북구 화암동 대지433㎡(131평). 전.임1,994㎡(603평) 구 주택 2동.매매가 1억6,000만원. 조망 경관양호.

010-3616-8698. 062-233-2222

중앙공인중개사

♣.상가건물

☆.일곡지구 30m도로 버스 승강장옆 상가건물 보증금4억 월세1,540만원 매매가25억5천만

☆.매곡동 아파트 밀집지역 보증금 1억5천만원 월세 450만원 매매가 7억4천만원

☆.광송간 대로변 운천저수지 4거리 인근 3층건물 매매가 5억7천만원

☆.광송간 대로변 4층건물 매매가 8억5천만

♣.전원주택

☆.광산구 오운동 대지 : 322㎡ 건물 : 95㎡ 매매가 : 5천만원

☆.담양군 대전면 한재골 대 : 1,330㎡건 : 60㎡ 매매가 : 2억8천만원

♣.대지.전.답.임야

☆.광송간 대로변 대지 : 370㎡ 매매가 : 13억5천

☆.마륵동 답3,000㎡ 매매가 7억원

☆.벽진동 답5,600㎡ 매매가 11억원

☆.금호동 답1,600㎡ 매매가 4억2천만원

☆.오치동 대지506㎡ 매매가 4억6천만원

☆.북구 운암동 프린스호텔옆 35M도로접 대지 677㎡ 매매가 ㎡당 3백만원

☆.압촌동 정착촌마을대 : 3,600㎡ 매매가4억3천

☆.광산구 옥동(평동)주거지역 답1,438㎡ (원룸적합) 매매가 ㎡당 20만원

☆.광산구 우산동 답279㎡ 매매가 4,200만원

☆.장성남면 임야 : 13,500㎡매매가 : 4억5천만원

♣.주유소매매

☆.광산구 오운동 시외에서 시내방향 2복식3대 매매가 9억원(면세유 다량 판매가능)

062-374-5945

010-3162-4989

금당 공인중개사

■감정가 이하

• 원룸부지. 북구 삼각동 180평 대출1억6천 매도2억천.
• 곡성군 입면 금호타이어 입구 2차선도로접 관리지역 759평 가든·공장등 다용도 대출 6천 매도 9천만원
• 충장로5가 수퍼 대지 27 공시지가 1억9200 매도1억8천
• 북구아파트단지입구 상가동지하 113평 교회적합 1억3천
• 무안군 청계면 비행장. 골프장 부근 바닷가 대지 526 건평 199 가든·팬션 등 적합 대출 3억 교환가능 6억
• 금남로 창업금고접 대로변 땅 247평 중심 상업지역, 영업잘됨 공시지가 13억 투자가치 좋음 매도16억
• 월산동 카센타 대지 34 건평 36 공시지가에 매도 9550만원
• 광산구 우산동 대지185 건평624 감정15억4천 임대된곳은 전세5천만원 월560만원 대출5억5천 매도9억3천
• 금남로5가 대로변 대지496 건평872 공시지가53억2천 임대사업에 적합 매도 53억원
• 금남로5가 대지80 건평300 공시지가 13억3천 매도10억3천
• 동구 수기동 상업지역 282평 오피스텔.원룸.다가구주택적합 공시지가 6억8300만원 매도5억2천만원
• 광산구 주유소 땅470 대출7억 급매8억3천 교환가능
• 대인동 계림시장옆 4차선도로 상업지역372 건평435 공시지가 25억7천만원 매도13억3천만원
• 금남로4가 대지96 건평322 공시지가 매도16억
• 중흥동 사찰 대지 242 건평 487 공시지가 4억6천 매도7억4천

■매도·교환

• 전원주택지. 담양군 봉산면 쌍교부근마을 대지168평 공시지가에 매도 3400만원
• 화순군 동면 서성리 별장촌 250평 경관좋음 1억7500
• 사찰부지. 북구 덕의동 광주댐 부근 1840평 4억8천

T. 222-4994, 010-2632-5659 동구 금남로5가

크리스탈 빌딩 / 지상 8층, 지하 2층

서구 양동 47-23번지

• 1층 223㎡ 보2천 2백 1십만원
• 2층 227㎡ 보1천 1백 1십만원
• 3층 240㎡ 보1천 1백 1십만원
• 4층 240㎡ 보1천 1백 1십만원
• 7층 240㎡ 보1천 1백 1십만원
• 8층 240㎡ 보1천 1백 1십만원 〈각층 모든 업종가능〉
• 부가세 별도 관리비 20만원
• 특전 : 권리금 없음, 1개월 임대료 없음, 주차시설 완비, 최신식 리모델링

상담전화 : 010-5879-0005

용봉동 로뎀빌딩 (노스페이스옆)

북구 용봉동 1412-11(지상 5층 지하 1층)

• 1층 442㎡ 보3천 480만원
• 2층 442㎡ 보1천 290만원
• 3층 145㎡ 보1천 65만원
• 5층 140㎡ 보1천 60만원 〈각층 모든 업종가능〉
• 부가세 별도 관리비 저렴
• 특전 : 권리금 없음, 1개월 임대료 없음, 주차시설 완비,유럽풍 최신건물

상담전화 : 010-5879-0005